



2023 교회 표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요 10:11)

주일 예배 순서	오전 11시 인도 박현수 목사
*기 원	목 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양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찬412) -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기 도	김태중 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1장 35-51절
특별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찬양대 -
설 교	“와서 보라!” -박현수 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양	신자 되기 원합니다(찬463)
*봉헌기도/축도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헌금은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Zelle 온라인헌금: highland.giving@gmail.com)

Youtube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 금요찬양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QT 방송: 화요일, 목요일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 목사) hellofromhighland@emweb.com (EM Web)

◀ 아버지들에게... ▶

오늘이 Father's Day 입니다. 전통적으로 Mother's Day는 시골벽적 한테 비해, Father's Day는 조용합니다. 상점들도 어머니 날 세일 광고를 많이 하고, 그 날에는 식당들도 모두 예약이 되어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날은 그에 비하면 너무 조용합니다. 어머니 날에는 자녀들도 돈이나 명품들을 선물하지만, 아버지 날에는 공구나 그릴을 선물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스스로에게 그릴을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 굽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니, 결국 선물이기 보다는 일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날에는 아이들이 몇 주 전부터 선물을 생각하느라 분주하지만, 아버지 날에는 말을 해야만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날에는 학업 중이라 학교에서도 뭔가를 하는데, 아버지 날에는 방학이라 그것조차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한국의 전통을 따라 “아버지 주일”을 지켜 왔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습니다. 물론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들에게도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지만, 미국에서는 그 날이 ‘어머니 날’이라, 웬지 께사리 긴 기분입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에는 아버지 날에 사탕 등을 선물해드리기도 했지만, 선물 아이템도 동이 났습니다. 적은 예산에 무엇을 해드려야 할지 망설이다가, 이번 년도도 그냥 지나칩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버지라는 자리는 뭔가를 누리기보다는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감격이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아버지들을 크게 격려해주시십시오. 오십이 되니 저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나봅니다 ^^; -박목-

◀ 광고 ▶

- 6월 중 구역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여름 행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추후에 알려 드립니다.
- 목회자 동정: 담임목사 휴가 (6/29 목 - 7/8 토)
- 친교: 이번주- 황인성 집사 가정, 다음주- 배석필 집사 가정
- 협력기도: 권순조 권사, 남궁운자 집사(허리), Sophia Cho
- 다음주 기도: 최의순 장로/ 6월 뒷정리: EM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홍정모(Abraham)
교육전도사 신준식(James, 유초등부)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Adam Kastler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MTW - 강충만
캄보디아 - Nuth Sydeth
NOVO(NK) - 서예레미야
니카라과아 - 정연효
REI - James Kang
Global Hope - 조용중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로 보내는 1% 챌린지 교회입니다!